



청년들을 공예로 이끄는 방법:

오스트리아 공예협회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의 지식 전달을 위한 전략과 활동

르나테 브리우스*

초록

이 논문은 먼저 공예 지식의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차원들을 살펴본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공예협동조합인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에서 개발되고 실천해 온 창의적 전승과 전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들에 대해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와 보고가 뒷받침 되어야만 젊은이들을 공예업으로 끌어모을 수 있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안텔스부흐의 베르크라움 하우스를 중심으로 결속된 서로 다른 무역과 업종들을 가진 100개 회원사들에게 있어, 공예의 계승은 지역과 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핵심 목표이다. 베르크라움 하우스는 스위스의 유명 건축가 피터 Zumthor가 설계한 것으로, 이 지역 공예품들의 대표적인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건물 자체의 양식은 현대적이며 공예 지식을 매력적으로 표현한다.

키워드: 인식 제고, 암묵적 지식, 지식 전달, 다른 분야 사이의 교류, 참여 환경, 지식의 문서화

* 레나테 브리우스는 오스트리아의 포어알베르크 시에 있는 응용과학대학교에서 문화, 디자인과 지각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2016년까지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벨트공예협회의 이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여러 공예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건축 문화, 공예, 요리 이론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다수 발표했다. 이메일: rena.te.breuss@vol.at.

1.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 공예협회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는 오스트리아의 지역 공예협회다. 이 협회는 1999년에 100개의 공예업체가 모여 설립하였다. 브레겐저발트(오스트리아의 서부 끝인 포어알베르크주에 위치) 지역의 수공예 문화는 수세기 동안 그 전통을 유지해 왔다. 지역민들의 노동방식과 행동들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의 농업, 공예 산업, 관광사업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풍경을 조성하고 변화시켜 왔다. 특히 공예는 이 지역의 경제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 공예협회는 회원들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기술적인 가능성들을 개발, 사용, 공유하며, 이 모두를 베르크라움 하우스라는 독자적인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베르크라움 하우스는 안텔부흐에 위치해 있으며, 스위스의 유명 건축가 피터 줌토르(Peter Zumthor)가 디자인한 공예품 전시장으로, 지난 2013년 개관했다. 이곳에서 공예가들은 함께 모여 작품을 전시하고, 대회와 대담, 문화 행사, 아이디어 교환 등을 진행해 왔다.

공예가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위 협회는 그동안 청년들의 공예업 취업을



피터 줌토르가 디자인한 베르크라움 하우스, 오스트리아 브레겐저발트 델부흐 © Florian Holzherr

유도하고, 공예 기술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예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견습생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협회 회원사들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수들은 자신들의 검증된 지식의 승계를 확보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캐비닛 제조업자, 금속노동자, 전기 기술자, 건설업자, 업홀더, 신발공과 재단사, 금 세공인 등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이다.

2. 인식의 강화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 협회는 공예품들이 경제, 문화, 환경, 사회에 갖는 중요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공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프로젝트들을 진행한 바 있다. 공예에 대한 조기 교육은 젊은이들이 공예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배울 수 있게 한다. 한 예로, '킨더바우스텔'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 현장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창의적인 공예를 실습하고 또 여러 공예 기술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작은 "오두막"과 "집"을 짓는 등, 어른들의 일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이에 필요한 기술들을 숙련된 장인들로 부터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을 진행하고 감독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괜찮아, 실수하게 돼' 등 몬테소리 교육의 원칙들을 따라 아이들을 지도한다.

협회는 또한 젊은이들이 현대 공예의 기술과 훈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안내의 날을 마련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공예가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체험의 날이 있다. 이 공예가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작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교육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모두에서 사용되는 도구들과 기술들을 시연하고 보여준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워크숍 학교는 공예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지도에 한발 더 노력해 왔다. 이 학교에서는 5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공예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초기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예에 필요한 재료, 기술, 도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어린 학생들이 공예의 첫 걸음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에 끌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3년간의 오리엔테이션과 학습 및 실습이 있어야 보다 구체적인 분과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러 공예 프로젝트를 더 많은 대중에게 소개하고, 다소 아날로그적인 공예의 세계를 보다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있어 왔다.

공예업과 관련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청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직업훈련보다 학문적 훈련을 선호하는 현 교육시스템 내의 하락하고 있는 공예의 위상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예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실제 베르크라움 전시회의 목표이자 협력을 위한 방안이다.

3. 공예의 지식 분야: 암묵적 지식 1

지식을 공유하고 또 전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전, 우리는 교육시스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암묵적 지식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공예에 관한 지식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지식을 포함한다. 이 중 암묵적 지식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의 지식으로, 숨겨진 지식 또는 암묵적 앎이라고도 한다. 이 지식은 반복적인 행동과 관찰을 통해 얻어진다. 이에 반해 명시적 지식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을 말한다. 디자인, 예술, 공예의 대부인 윌리엄 모리스는 공예의 전통적인 기술을 일컬어 "무의식적 지식의 예술"이라고 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행동에 얽매어 있는 지식이며, 명시적인 지식과는 반대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마이클 폴라니는 1966년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람 안에 내재된 지식이나 행동은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고대 시대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 요리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면, 기록된 것은 요리에 별로 쓸모없다는 말이 나온다. 즉, 음식 재료의 질과 양을 판단하고 적절한 비율과 일관성, 형태를 찾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본인만의 감각과 신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대부분의 요리 레시피는 감각적이고 신체와 관련된 묘사로 가득했다 (Breusse 2019). 마찬가지로, 베르크라움 하우스의 개관식에서 "수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빈의 철학자, 예술가, 영화감독 피터 쿠벨카는 "언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문장에 매우 회의적이다. 쿠벨카는 우리의 언어 및 단어 체계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야

1. 다음 장들은 Renate Breuss 가 "공예속 지식과 협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동 집필하고 공동 큐레이션한 전시회 카탈로그를 참조한다.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절차적 기억과 같은 비언어적이고 비회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뜻한다. 즉,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분명,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말하기 또한 행동이지만, 말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쿠벨카는 마치 장인들이 하는 것 같이 음악을 만들고, 촬영하고, 요리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을 개발한다. 이 지식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모든 감각으로 이루어 낸 정밀한 관찰과 지각에는 분명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다 (Kubelka 2013).

공예 외에도 건축, 스포츠, 의학 진단, 디자인 등 암묵적인 지식으로 인해 생긴 많은 분야들이 있다. 사실 창조적인 활동과 공연적인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분야는 암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론적 지식이나 학문적 지식보다 훨씬 덜 알려진 이러한 형태의 지식을 더



2016년 "수제" 전시회에서 소개된 대장장이와 바이올린 연주가의 움직임에 담은 스틸 사진들
© Matthias Günter

정확히 또 더 널리 인식할 수 있을까? 쿠벨카는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전해지는 간단하고 단순한 언어의 이용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암묵적 지식 분야에 큰 기여를 한 플라니는 인간의 지식과 함께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플라니에게 지식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능적인 도구로 사용할 때 암묵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체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또 세상을 주관하는 원칙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 원칙들에 따라 행동한다."(Almevik 2016, 82)

특정한 행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사람과 행동에 얽매어 있는 공예 지식은 사람의 신체와 그 도구들을 지능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감각 지각, 팔다리와 몸짓 등이 포함된다. 플라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재되고 구체화된 지식은 규제하는 원칙들에 의문을 갖지 않은 채 반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지식은 공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학에서도 이런 지식은 매우 중요한데, 과학자들은 암묵적 지식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추구하며 발견이나 결과를 예상할 때가 자주 있다. 플라니의 이러한 주장은 본인이 화학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Almevik 2016, 82).

실험실의 과학자들처럼, 공예가들은 실험하고, 관찰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놀라움에 즉시 반응하며, 작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일에도 대비한다. 공예 공방과 건설 현장은 학교와 대학교에 버금 가는 배움과 지식의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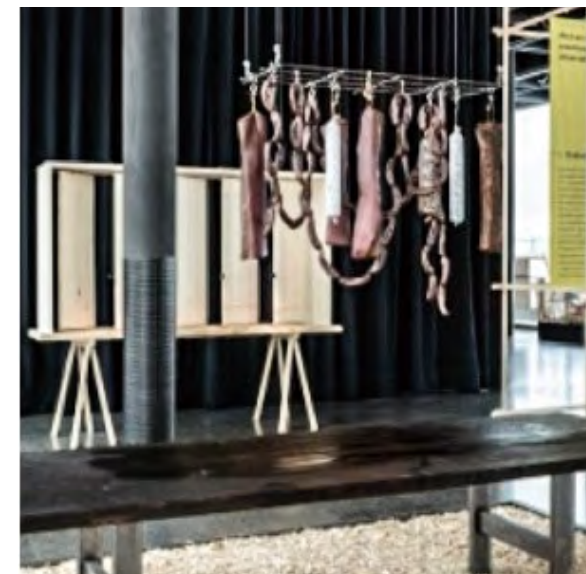
이런 '숨겨진 형태'의 암묵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관해,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넛은 공예는 '보여주되, 말하지 말라'는 격언에 따라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nnett 2008, 240). 세넛은 몸의 움직임들이 언어의 기본을 형성한다는 신경학자 프랭크 윌슨의 말을 인용한다 (Sennett 2008, 242). 우리는 공예가들이 일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움직임과 몸짓에서 기술과 지식의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 피아노를 치든 나무를 준비하든 문고리를 제작하든, 어떤 한

행동을 숙달하게 되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벽함을 체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공예 연구가인 리처드 세넛은 공동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에서 이러한 자질을 달성하는 것을 공예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관행을 체화하여 그것이 일상이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 많은 지식과 혁신을 배양할 수 있는 비옥한 토대가 된다. 세넛은 이러한 특징들이 디지털적인 맥락에서도 전파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ennett 2016, 48-50). 비엔나 응용미술 박물관(Museum of Application Arts, Vienna)의 카탈로그에 실린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한다: "제 책 [The Craftsman]이 출간된 이후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디지털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사람들 등 우리 또한 장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Sennett 2016, 50). 이와 같이, 공예장인정신의 본질은 그 태도 및 마음가짐에 있으며, 우리는 기술과 기법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의 유지와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



"전시장에서 지식창으로". 안델부흐 베르크라움 하우스에서 열린 공예속 지식과 협업 전시회(2021년 2월 27일 - 10월 31일) © Johannes Fink

공예가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들 행동의 세련됨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몇 년 전, 베르크라움은 특별한 영화를 촬영했는데, 이 영화는 2016년 수공예 (Handmade) 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 프로젝트의 큐레이터인 피터 줌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손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지고, 피아노를 치고, 옷을 바느질하고, 거푸집에 철근을 붓고, 바닥을 깔고, 접시를 닦습니다. 때로는 수제 물건의 위상이 대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손으로 수행한 작업의 결과가 언급할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사물에 형태를 부여하는 예술가들은 손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생산라인의 수작업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Werkraum Bregenzerwald 2016). 젊은 스위스 영화 제작자 마티아스 권터는 61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들은 모든 종류의 수동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고 있다.



"검정의 비전" (2021). 수납장 제작자, 정육 전문가, 철제 대장장이의 전시작품 © Johannes Fink

이 영화들을 통해 다양한 공예 기술들이 보여질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기술들에서 만들어지는 독창적인 소음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암묵적인 지식은 숨겨지지 않았고, 체화된 기술의 감각적인 측면 또한 부각이 되었다. 현장에서의 소리는 기록과 현실을 연결시켜 주었다. 권터는 이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서 단 하나의 장면이나 정보도 편집하지 않았으며, 1:1로 작업 단계를 기록했다.

피터 줍토르와 레나테 브로이스가 진행한 여러 관련 토론에서 공예가, 농부, 예술가, 의사, 수녀, 조산사 등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각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지식의 공유와 교류

공예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사람과 그들의 행동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이는 노하우의 전달과 지식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에서는 이러한 교류와 전달을 위해 매년 전시회가 열린다. 즉, 협력적인 공예품 개발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주제를 위한, 즉 협력적인 공예품 개발과 지식 공유를 위한 경기장을 만든다. 분야간의 다른 점들을 뛰어넘는 여러 공예품들과 그 관계자들의 교류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협력으로, 발전되고 실현된 제품들이 요구된다.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맥락으로 투명한 제품의 공정과정 및 실행 과정들은 공예와 지식의 병렬적 공존을 한 공간에서 창조해 낸다.

전시되는 제품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탐구한 결과물 들이고, 응용 지식 실습 분야에는 물질 지식, 개발된 지식, 지식의 전수 또는 지식의 문서화에 초점을 맞춘 전시물들이 포함한다.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분야에서 검정의 비전 이라는 전시작은 세 가지 공예업종에서의 검정화 기법을 비교하고 시연하고 있다. 수납장 제작자, 정육 전문가, 철제 대장장이는 모두 제품을 살피고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수납장 제작자는 식탁에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는 도구로 숯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가 타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공예 기술이 필요하다. 이 결과 짙은 검은색의 세련된 표면이 나오며, 또한 매듭, 균열, 소용돌이 등 목재의 뚜렷한 특징들을 강조할 수 있다. 최종 표면은 기름이나 석회 등으로 덧칠을 해 내성을 높이고, 철제 대장장이도 같은 기법을 사용해 뼈대를 마감한다. 그는 식탁의 철골과 식탁 위에 고기를 거는 고리들을 전시했다. 도살 전문가는 열과 연기로 돼지 고기 식품을 다루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나무와 강철에서와의 비슷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온다. 세 협력 파트너는 열, 연기 및 불을 사용하여 각각 기본 재료의 특성을 변경하는 유사한 공정을 이용했다.



2019년 학습 연구소에서 베르크라움 학교 학생들이 디자인 교사들, 조교들, 장인들의 지도 아래 나무로 된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 Roswitha Schneider

그들 모두가 나무, 강철 또는 고기의 품질과 반응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들은 작업 과정에서 오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각자의 개별 작업에 반영했으며, 그 경계를 확장해 내었다. 이와 같이 지식의 함양은 작업에 기반을 둔 어떤 현상에 대한 감각적인 관찰을 뒤 따른다. 전시에서 보여지는 파격적인 병렬배치를 통해 검정화 기법의 새로운 차원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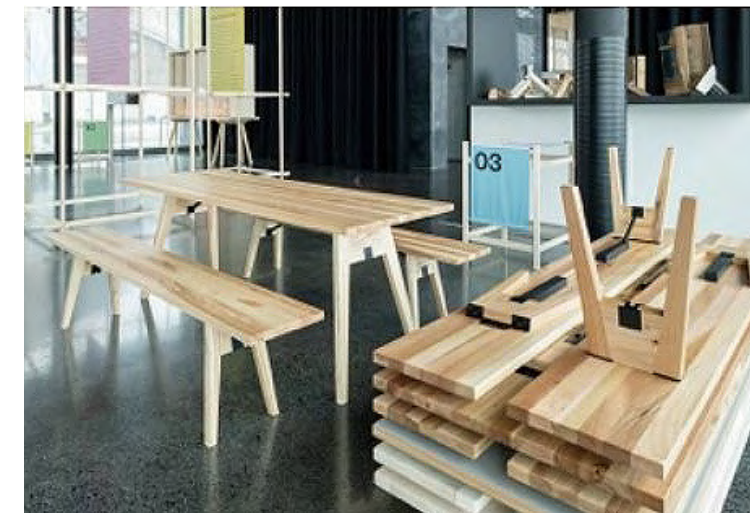
업종 및 거래처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워크숍, 대화 및 실무에서 공동적으로 창조하는 작업들은 개인과 또 그 지역 전체를 위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공동체 기반의 가치, 기술, 기법들은 그들이 창조하는 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이는 나아가 그 지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5. 지식의 전달

기술과 지식을 전수할 때는 무엇을 전수하고 싶은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증명되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 우선 순위는 무엇이며 그 순위는 누가 정하는가? 전통적인 교육 체계에서는 교육기관이 강의 내용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공예분야에서는 작업실이 곧 배움과 지식의 현장이다. 각 공예업소의 강사들은 가장 중요한 업무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집중하며, 이 교육에 알맞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자료와 도구를 선택한다. 전문성과 참여로 전해지는 이러한 지식은 책에 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예와 그 지역을 위해 이런 지식이 대를 이어 보존되기 위해서는 공예 작업이 새로운 방식과 미디어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예의 지식을 전할 때 공예가에서 공예가로, 즉 사람 대 사람의 전통적인 방식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까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최신 형식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공예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세대에서 세대로, 또 공방에서 공방으로 전해지는 지식의 보존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육에서 또 나아가 추가 교육에서만 보장이 될 수 있다. 작업장에서의 현장 학습은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교육으로 효과가 있으나, 공예 장인의 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예의 지식 또한 상실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전달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베르크라움 학교 설립은 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소기업들의 공동 플랫폼으로서,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는 노동력 확보에 있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이중 교육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및 일부 이탈리아(남부 티롤 지방)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왔는데, 이 시스템은 직업 및 직장에서의 학습을 극대화한다. 이 새로운 형식은 공예에 대한 방향성과 교육을 미래 세대에 성공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교육



전시중인 접이식 벤치와 식탁 세트. Tischlerei Anton Mohr 와 Gerola Metalltechnik 作 © Johannes Fink

시스템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베르크라움 학교는 견습생 프로그램과 직업학교를 합쳐 총 5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교육 커리큘럼은 어린 학생들이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끌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재료, 기술, 도구를 알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이 교육과정은 모든 종류의 재료, 기술, 도구들을 이해한 뒤에야,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실제로 견습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실습은 일주일에 한 번 공방에서 진행된다. 또한 교육과정은 수납장 전문가, 창문 설치공, 목수, 바닥 전문가, 오르간 건축공, 금속 기술자, 금세공업자, 전기 설치 기술자, 배관공, 지붕공, 벽돌공, 화가, 제빵사, 정육점, IT 기술자, 석재 조각가, 스토브 건설자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여러 매체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동료 간에 소통하며, 그들 자신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다. 원로 장인들은 개인강사 역할을 하고, 디지털 학습장비는 말한다는 것의 개념을 확대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것을 책으로 배울 수는 없다.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물질의 특성과 특징을 경험하고 파악하는 것 만이 본인의 판단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책과 이론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없는 유형의 지식이다. 현재의 교육 정책들엔 분명 메꿔야 하는 구멍들이 있고, 공예 노하우에 대한 가치도 전반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마리스타드 시에 위치하고 2010년 설립된 예테보리 대학교의 스웨덴 공예 연구소는 다양한 매체, 특히 영화를 통해 공예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에 큰 기여를 해 왔다 (Almevik 2016, 77-80).

지식 전달은 공예품 자체로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베르크라움 전시회에서 접이식 식탁 벤치를 재설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전시회에 참여한 수납장 제작자의 다년간의 경험과 금속세공업자의 노하우는 이들이 창의적으로 지식을 넓히는 동시에 클래식한 가구로부터 새롭고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였다. 이 제품은 또한 전통적인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과 결합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KLAPPER 200이라고 불리는 이 접이식 식탁 세트는 '베이버리안 맥주 테이블'로 알려진 클래식한 유형의 벤치 및 테이블 세트를 시각적으로, 또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현대적이고 고품질의 제품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트의 형태와 재료가 재고되어야 했다. 장인들은 협력을 통해 양산형 클래식 테이블 세트보다 재질과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야외와 실내 배치에 모두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 냈다.

전시된 시제품은 다른 나무재질들과 마무리를 보여준다. 테이블 상판에선 비누로 마무리 된 단풍나무, 기름으로 마무리 된 느릅나무, 또 기름으로 마무리 된 재와 리놀륨 재질들을 볼 수 있고, 벤치들에선 비누로 마무리 된 단풍나무, 기름으로 마무리 된 느릅나무, 역시 기름으로 마무리 된 재들의 재질들을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솔루션의 용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공예 가구에 대한 높은 기대와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성 부품 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장인들의 협업 과정에서, 고전 방법들에 매우 익숙한 금속 공방업자 제롤라 메탈테크닉과 수납장 제조업자 티슐레이 모어는 보다 다루기 쉽고 더 미적인 새로운 금속 조각들을 디자인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시제품을 광범위하게 테스트 한 결과, 이들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단순하고 간단한 가이드라인들은 이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노하우와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전수하는 것은, 개선된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된다.

6. 지식의 기록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문서화하는 것은 진정성과 자기반성력을 기반으로 한다. 공예를 문서화하는 과정은 이 문서가 묘사하는 공예기술을 재현하고 탐구한다. 문서 전송 과정에서는 미디어와 기술, 공예법, 이 공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교육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기존의 문서화 작업을 그 공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조언 및 설명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또한 공예와 관련된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를 추가하고 여러가지의 기록 방법을 혼합할 것을 제안한다 (Almevik 2016). 스웨덴 국가 전문가로 EU 프로젝트 '기술, 훈련, 노하우 전수'에 참여한 군나르 알메비크는 마리에스타드 스웨덴공예연구소와 국유재산위원회와 함께 스웨덴의 전통 공예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문서화 기술과 이에 대한 참여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공예 장인들이 단순히 생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한다 (Almevik 2016, 84).

전시된 제품들의 개발 및 제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는 공예 작업의 복잡성을 투명하게 만든다.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의 작업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서면 및 시각적 기록, 스케치, 구현 계획 및 상세 계획과 같은 일반적인 기록들과는 또 다른 하나의 문서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록과 제품이 곧 하나가 된다. 또한 전문가들 스스로 기록을 하는 데 있어 공예나 수용자의 구체적인 관점에 따라 어떤 과정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7. 결론

1) 공예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그것이 명료해 지고, 전달될 수 있으려면, 먼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암묵적 지식의 불변성을 골라낼 때 이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 공예가들은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공예 절차와 공예품의 문서화에 참여해야 한다.
- 상황에 알맞는 방법들이 공예 센터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의 공예연구소나 베르크라움 브레겐저발트 공예 협회가 좋은 예들이다.
- 말로 전하는 전달의 개념을 탈피하고 대면 전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문서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암묵적인 지식은 숨겨져서는 안 되며, 우리는 내재된 기술이나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의 감각적인 측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이는 문서, 서면, 시각적, 또는 청각적은 모든 유형에 적용된다.
- 공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공예 절차에 사용되는 기술과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 베르크라움 학교에서의 첫 시도와 경험은 사회 참여가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6학년 그룹은 2021년 가을에 31명의 학생 (7명의 여학생과 24명의 남학생) 으로 시작되었다. 공예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동기부여된 학습자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서로 다른 학습 맥락과 학습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설명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들의 학습 적성을 향상시켰다. 졸업생 모두가 해당 지역의 워크숍이나 참여 회원사들의 취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전반적으로 공예에 대한 지식 전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 교육은 다양한 직업 경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기업들은 교육을 잘 받은 이런 사람들을 높게 평가한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때 알 수 있는 현상이다.

2) 사회가 공예에 대한 지식 및 실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사이에는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감각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은 우리가 물질적 접촉에 의해, 육체적인 무언가를 함으로써 상상의 존재를 실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은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에 철학자 존 로크가 지적했듯이 먼저 감각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지성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해당된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감각적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신은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공예에서는 많은 결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느껴진다 - 루돌프 슈르 리페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이 과정에서 기계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통합되거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동기부여 효과는 리페가 말한 바와 같이 재료와의 직접적인 대화의 결과이다(Lippe 2005, 6).

공예 연구가 리처드 세넷의 주장처럼, 공예의 혁신이나 새로운 관행은 암묵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맥락들과 주변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문맥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공예장인정신은 폐쇄적인 시스템인 산업 시스템과 대조되는 개방형 시스템에서의 태도 및 팀워크이다. 전통 공예 지식의 창의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신뢰 관계의 증진, 지식의 교류 및 공유 등을 중요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lmevik, Gunnar. 2016. "From Archive to Living Heritage: Participatory Documentation Methods in Crafts." In *Crafting Cultural Heritage*, edited by Palmsköld, Rosenqvist & Almevik, 77-99. Gothenburg: University of Gothenburg. <https://gup.ub.gu.se/file/206649> (last downloaded 2021-08-22).
- Bezauer Wirtschaftsschulen. 2020. *Präsentation Werkraum Schule*. https://www.youtube.com/watch?v=2F8wEZveq_U (last downloaded 2021-08-22).
- Breuss, Renate. [1999] 2020. *Das Maß im Kochen* (Measuring in Cookery). Innsbruck: Löwenzahn.
- European Union. 2019. *Fostering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on Skills, Training and Knowledge Transfer in Cultural Heritage Professions*. Report of the OMC Working Group of Member States' Expert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e38e8bb3-867b-11e9-9f05-01aa75ed71a1/language-en> (last downloaded 2021-08-22).
- Kubelka, Peter. 2013. "Der handgemachte Mensch" (The Handmade Human) [video lecture]. Unpublished transcript by Renate Breuss.
- Lippe, Rudolf zur. 2005. "Handwerk-Ökonomie des 'Zwischen.'" In *eigen+sinnig. Der Werkraum Bregenzerwald als Modell für ein neues Handwerk*, edited by Florian Aicher and Renate Breuss. München: Ökom.
- MAK (Museum of Applied Arts). 2017. *handiCRAFT. Traditional Skills in the Digital Age*. Exhibition Catalog. 14 December 2016-9 April 2017. Vienna: Verlag für modern Kunst.

Polanyi, Michael. [1966] 2009.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nnett, Richard. 2008. *Handwerk*. Berlin: Berlin Verlag. Originally published as *The Craftsma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_____. 2016. "Musicians, Sportspeople, and Computer Programmers Are Craftspeople Too." In *handiCRAFT. Traditional Skills in the Digital Age*. Exhibition Catalog of MAK, Vienna.

Werkraum Bregenzwald, ed. 2016. *Handmade*. Exhibition Catalog. Andelsbuch.

_____, ed. 2021. *From Display Window to Knowledge Window*. Exhibition Catalog, co-authored by Renate Breuss and Daniela Fetz (English translation: Aurelia Batlogg Windhager). Andelsbuch.